

# 목 차

## · 평가원이 니들을 물먹이는 법

- ① 1406B 현대시
- ② 2206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A] 발췌
- ③ 2503 현대시
- ④ 2606 고전시가 [A] 발췌



## 평가원이 니들을 물먹이는 법

### ■ 시험장에서 문제 선지에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시험을 볼 때 1번부터 5번까지 쪽 봤는데 답이 아예 안 보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안 보였는지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선지를 판단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건과 후건을 나눠 판단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명한 파트는 몽개고 확실한 부분만 보는 법, 주로 답이 되는 선지의 특징 등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이 안 보인 이유는 평가원이 우리의 **통념을 저격**하거나, **구성 요소를 바꿔치기** 했거나, 선후 인과를 바꿔치기 했기 때문입니다.

왠지 그럴싸하고 지문에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선지를 쪽 보면 답이 없죠.



확실하게 지문에 없거나 있는 것을 묻는 선지는 바로바로 근거를 잡고 풀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왠지 답이 안 보여서 아무거나 고르고 틀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 같이 쉬운 예시부터 확인하며 가봅시다.

**1406b 현대시**

(가)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

㉠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 손잔등이 밧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뽕뽕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 백석, 「팔원(八院)-서행시초(西行詩抄) 3」-

\* 내임 : 냐. '배웅'의 평안 방언.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어린', '하나'는 화자가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를 나타낸다.
- ② ㉡에서 '밧고랑'에 비유된 '손잔등'은 계집아이의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
- ③ ㉢에서 '삼백오십 리', '백오십 리'는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임을 나타낸다.
- ④ ㉣에서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을 강조한다.
- ⑤ ㉤에서 '눈을 씻는다'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

**39. 대상과 대상의 구별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방향성!****■ 정답해설**

- ④ '계집아이'는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자성'으로 향합니다. '묘향산' 인근에서 삼촌이 살고 있으니 '자성'에 가족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별하는 대상은 '내지인 주재소장'입니다. 따라서 '육친과 이별하는'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 2206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A] 발췌

이때는 추구월(秋九月) 보름 때라. 월색은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었고, 공중에 외기러기 웅웅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간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불여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송이가 모든 심사 잊어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 밝은 달 발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심회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하여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하는데,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님은 어찌 못 보시고. 그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뜯던 여인은 만고문장백낙천(萬古文章白樂天)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랑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 30. [A]의 ‘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는 대상이다.
- ②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한다.
- ③ 송이가 자신의 심사를 들추어내어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화된 상대이다.
- ④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송이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표하게 한다.
- ⑤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한다.

### 30. 우리가 가진 통념에 빠지지 말 것!

#### ■ 정답해설

- ① ‘달’이라 하면 정읍사의 ‘달’ 이미지와 같이 자신의 소원을 비는 대상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일 뿐입니다. 실제 작품에서는 소원을 빌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2503 현대시

(나)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내리는

그 꽃잎 부리러\*

이 배는 ㉡ 신포 어디쯤에 닿아 헤맨다

저 망해 다 쓸고 온 꽃샘바람 거기 부는 듯

몸 속에 곤두서는 봄 밖의 봄바람!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 떼와 문득 마주친다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우연 황삿길** 타박거리며 간다

마음은 결가지로 펄럭거리며 덜 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너머**끝내 닿을 수 없는 ㉢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땃이 끓긴 배 한 척,

- 김명인, 「봄길」 -

\* 부리러 :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것을 내려놓으러.

##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다.
- ② ㉠에서 ‘건너기’의 힘듦을 자각한 화자는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로 향한다.
- ③ ㉡에서 화자는 ‘거기’에 부는 ‘꽃샘바람’을 ‘몸 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 ④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번민하는 화자는 자신을 ㉡와 ㉢ 사이에 놓인 ‘땃이 끓긴 배 한 척’으로 인식한다.
- ⑤ ㉢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 33. 대상과 배경을 구별할 것!

#### ■ 정답해설

‘항구 몇 개’는 ‘아지랑이 너머’ 존재하는 화자의 지향점입니다.  
따라서 ‘~에서’ 정오 판단을 해야 합니다.  
㉔는 배경이 아닌 대상입니다.

※ 참조

‘에서’

2. 앞말이 출발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 ● 2606 고전시가 [A] 발췌

(가)

화룡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 있어  
 뿔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龍沼)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 들으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기를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  
 화룡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들으니 그럴듯해 건넛산 바라보니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 2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파인 곳에 끼어 있는 '돌 하나'는 '못'의 용이 재주를 부려 옮긴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산 중턱의 '틈'과 '이 돌'을 견주면서 그 크기가 유사함을 제시하고 있다.

### ■ 지문 근거

화룡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들으니 그럴듯해 건넛산 바라보니

### ■ 교훈

정답은 바로 ④번입니다. 지문에서 화자는 '건너편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건너편 산'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문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겨도 좋습니다.

“이 작품은 「관동별곡」 같은 기행 가사이기 때문에, 서술어에 집중해서 화자가 실제로 공간을 이동한 것인지, 그저

시선을 이동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추가적으로, 문학의 기초 요소인 화자 / 대상 / 상황(배경) / 정서를 중심으로 작품을 구조화해 보는 연습도 함께 해 봅시다.

화자는 현재 ‘건너편 산’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건너편 산’은 화자의 시선이 향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선지처럼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라고 표현하면, ‘건너편 산’이 화자가 위치한 **배경**이 됩니다.

이 선지는 **대상**으로 제시해야 할 ‘건너편 산’을 **배경**으로 바꿔치기한 사례입니다.